

• IR/PR •

### 중국 普天그룹 부총재 및 실무진 방문

답헤드(대표 이은석)는 중국 제 1의 정보 통신그룹인 보천 그룹 장연애 부총재와 그룹 실무진들을 초청, 제품 설명회를 가졌다.

답헤드를 처음 방문한 장부총재 등 보천그룹 일행은 답헤드 모니터를 기능이 단순한 일반 모니터 제품으로 생각했다가 화상회의, TV 시청, 노래방, 전용 채널 등 답헤드 모니터만이 갖는 놀라운 기능들을 접한 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보천그룹은 조만간에 답헤드 이은석 회장을 중국으로 초청해 두 기업간의 합작투자 회사 설립 및 제휴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 이은석 대표(오른쪽)와 장연애 부총재(왼쪽에서 세번째)

### 컴텍코리아-우리넷 통합방송 솔루션 공급계약

컴텍코리아가 우리넷과 22억원 규모의 통합방송 솔루션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번에 공급되는 솔루션은 미국 스카이스트림의 헤드엔드 시스템인 '미디어플렉스-20'을 비롯해 에어코드의 이피지 서버 및 PSIP 제너레이터, 캐나다 웨이브컴의 디지털 QAM 모듈레이터, 열림기술의 셋톱박스 등으로 구성된 토털솔루션으로, 우리넷의 주·부조정실, 편집실, 송출시스템 등 방송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게 된다.

우리넷은 이번 디지털 헤드엔드시스템을 통해 다채널 고품질의 방송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통합 방송망 구축으로 상주·김천·선산·성주를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18개 협력 중계유선방송사들의 전송망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우리넷은 최근 방송위로부터 SO 전환승인을 얻은 중계유선 컨소시엄으로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케이블방송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 피엔에스텍에 지분투자

통합인증권한관리(EAM) 등 e-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전문 업체인 아이티플러스(대표 이수용)는 시스템 보안 복구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피엔에스텍(대표 공병돈)에 지분을 투자해, 시스템 보안 복구 솔루션 분야에서 공동사업 및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아이티플러스는 피엔에스텍에 1억5천만원의 지분투자를 시행하고 6.7%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양사는 지분투자를 계기로 아이티플러스의 e-비즈니스 솔루션 구축 능력과 피엔에스텍의 백업 및 장애관리 솔루션 개발 능력이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장은 "피엔에스텍은 시스템 손상이나 데이터의 손실 및 누출 등을 방지 또는 복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최적의 컴퓨터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 보안 복구 전문기업"이라며 "백업 및 장애관리 솔루션을 위주로 한 아이티플러스의 시스템관리 솔루션 사업부문에 피엔에스텍의 시스템 보안 복구 솔루션 및 기술력을 접목시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보다 확장된 사업기회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티플러스는 현재 개발중인 독자솔루션이 완성되는 올해 말 이후 싱가포르를 비롯한 해외진출을 추진하게 되는데, 피엔에스텍과 공동으로 시장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 미 PCS사에 영어음성합성 기술 공급

음성기술 전문 업체인 보이스웨어(대표 백종관)는 미국 자동 전화 메세징 시스템 업체인 PCS사와 음성합성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급계약으로 PCS사는 자동 전화 메세징 시스템 제품군에 보이스웨어의 음성합성 제품인 '보이스텍스트'를 적용할 예정이다.

자동 메시징 시스템은 기업이나 교회, 병원, 학교, 기업 등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신속하게 전달해 주는 통보시스템으로 텍스트만 입력하면 어떤 음성언어든 합성해내는 음성합성 기술(TTS)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보이스웨어는 "영어 음성합성 솔루션은 경쟁사인 미국 AT&T 제품과 비교해도 기술적으로 대등한 수준"이라며 "미국 법인 네오스피치와 파트너사 등을 통해 북미 지역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 등지로 수출 상담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